

새해는 '해양치유 1번지 완도'에서 맞이하세요!

완도군은 내년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병오년(丙午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지고, 한 해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해 풍물 길놀이 ▲희망 콘서트 ▲신년 타고 ▲대형 불에 새해 소망 적기 ▲신년 화두 모래 조각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새해 떡국 나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월 1일 오전 6시 30분 신지 명사십리 해맞이 행사 개최

완도해양치유센터 새해 맞이 '1월 1일 반값 힐링 데이'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관광지인 완도해양치유센터(신지면 해양치유길100)에서는 새해를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1월 1일 반값 힐링 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기본2 프로그램'을 50%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에서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 77호선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즐긴 후 청해포구 촬영장에서 낭만적인 일몰을 감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날 완도에서 일출을 보며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크리스마스 맞아 와인 할인 이벤트까지 연말 즐기기 좋은 광양와인동굴

광양시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명소로 광양와인동굴을 추천했다.

광양와인동굴은 1913년부터 70여년간 화물 운송용으로 활용된 석정터널을 재생한 공간으로, 총길이 301m, 폭 4.5m, 높이 6m의 터널 구조와 외형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동굴 내부는 토타(Tomte) 인형으로 꾸며져 낭만적인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토타 인형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장식으로, 뾰족한 니트 모자와 풍성한 흰 수염이 특징이며 공간에 아늑하고 따뜻한 감성을 더한다.

아울러 고급 와인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할인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와인동굴은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보내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이색 공간"이라며 "와인과 미디어



아트, 와인족욕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로맨틱한 복합 문화공간에서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와인동굴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성인 7천 원이며, 광양·여수·순천 지역민, 경로, 장애인, 단체(20인 이상)는 6천 원, 36개월부터 고등학생까지는 5천 원이다. 입장권과 와인, 와인족욕을 결합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도 마련돼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덤(5%)+덤(5%) 성탄절 이벤트"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총 10% 특별 할인... 연말 지역경제에 온기 더해

순천시는 연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선할인 5%와 후(後) 캐시백 5%를 더한 총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즉시 5% 선할인을 받고, 사용 후 추가로 5%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캐시백 5%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시민들의 빠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행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2,000억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상품권 이용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내 가맹점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져, 지

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상권에는 따뜻한 활력을 전하고자 이번 특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쓰인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역사랑상품권이야말로 순천 경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전통시장, 소매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및 관련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카메라 뉴스



무안군 4-H연합회, 연말총회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군4-H연합회(회장 송효찬)가 지난 12일 연말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4-H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총회에서는 제28대 임원 선거가 함께 치러져 차기 회장으로 이용 회원이 선출됐으며, 부회장 정운환 회원, 감사 서민 회원, 김진석 회원이 선출되었고, 사무국장으로서 박진관 회원이 임명됐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 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무안군4-H연합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안군 제공



영광군, 사회복지담당자 안전교육(생존호신술) 실시

영광군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영광태권도체육관에서 사회복지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생존호신술)을 실시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태권도 분야 전문 지도진이 참여해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은 ▲ 위험상황별 대응요령 ▲ 일상 소지품(가방 등)을 활용한 방어기술 ▲ 상황별 거리두기·탈출법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돌발상황을 직접 몸으로 익혀보니 실제 현장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지품을 활용한 방어기술처럼 현실적인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2025년 화랑훈련 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은 '2025년 화랑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남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된 화랑훈련에서 장흥군은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업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운영과 군·경·소방·민방위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 성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훈련 기간 동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황조지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체계와 현장 중심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운영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